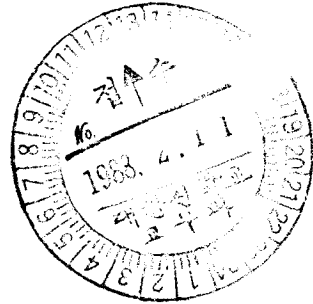


칼빈의교회본

지도교수 권영근



서기 1988년 4월 11일

대한신학교

기독교교육학

김기상

사

사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지도하여 주신 최명근 교수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
합니다.

1988

년

월

일

김

기

상


부 차

I.	서 론 - - - - -	1
II.	교회의 본질 - - - - -	3
	1) 성도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 - - - -	4
	2)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 - - - -	7
	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 - - - -	10
	4) 성도들의 교제로서의 교회 - - - - -	16
III.	교회의 기능 - - - - -	18
	1) 교회의 표식인 말씀과 성례전 - - - - -	18
	2) 말씀의 선포인 설교 - - - - -	22
	3) 성례전 - - - - -	24
	① 세례 - - - - -	32
	② 성만찬 - - - - -	35
	③ 신앙고백 - - - - -	39
	④ 순종과 복종 - - - - -	39
IV.	교회의 사명 - - - - -	40
V.	교회의 성격 - - - - -	43
	1) 기록하고 보편적인 교회 - - - - -	43
	2) 가변적 교회 - - - - -	45

3) 불가견적 교회	- - - - -	48
4) 참된 교회의 표지	- - - - -	53
Ⅵ. 교회의 직분	- - - - -	57
1) 4 교직	- - - - -	57
2) 교회의 조직과 직분	- - - - -	59
Ⅶ. 결 론	- - - - -	61
참고 문헌	- - - - -	64

김 기 상 의 졸 업 논 문 을 인 준 함

심사위원

崔 命 栢 

대 한 신 학 교

서 기 년 월 일

(칼 빈 의 교 회 론)

I. 서 론

"우리는 새 세계에 돌입했다. 전통적인 기독교국의 붕괴 교회의 선교적 경험, 에큐메니칼운동의 대두는 교회론이 신학의 중심을 차지하게 했다" ¹⁾

교회시들은 연대를 가리켜 교회학시대 혹은 제2의 종교개혁 시대라고 한, 이러한 교회론 연구에 대한 강조는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 장소의 선교에서 일어났다.

전통적인교회관은 재평가되고 거부되었으며 교회의 사회화 세속화, 정치화가 이루어졌다.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일어난 교회관은 능동적, 개방적, 동적인 교회관으로서 교회의 존재나 본질보다는 교회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의 본질을 무시 혹은 잘못된 이해하고 교회의 사명관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로 그 목적이 도치 되었

주 1) R. S. Paul, The Church in Search of Itself
(Grand rapids : Wm. B. Eerdmans, 1972) . p. 66p
2) 진도진, 현대 교회론과 선교사상, 교회문제 연구 제 1집
(부산 : 교회 문제 연구소 . 1977) . p. 20

다. 이러한 잘못된 교회관이 점차 신학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혁주의 교회관의 기초가 되는 칼빈의 교회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전체의 1/3 정도를 교회론에 할애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교회문제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3) 지금까지 칼빈 연구에 있어서 유독 교회론만은 별로 주의를 끌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칼빈의 교회론은 성서를 중심으로 신앙고백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예정 기운에 선택된 백성이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하며 그 가운데 말씀과 성례로서 거룩한 모임으로 참 교회를 이루어 예수의 속직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고백하여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다.

"칼빈의 교회관" 하면 칼빈주의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 개신 교회의 성직자나 평신도들이 적어도 한번씩은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책목이다. 특히 명실공히 칼빈주의 교회인 장로교 신자라면 더욱 그러하다. 한국의 장로 교회는 선교사들이 인식한대로 장로교 정치와 교회 조직을 그대로 받아 시행하고 지키면서 놀랍게 발전하고 성장했다.

그러나 수적으로 급성장한 교회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주3) 오토 베버는 16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타르틴 부저(제외리고는 칼빈만큼 교회론에 관심을 둔 사람도 없다고 말리면서 칼빈에 있어서 교회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Ott.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김영제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동단출판사 1985.9.44)

자찬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인 줄 안다. 교회의 현실을 볼 때 교회에 대한 많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음은 씩씩하고 단단한 일이다. 교회사상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이 타든지 장로교의 원리와는 배치되는 개신교 주의의 만연등 한국 교회의 특유한 개념과 현상을 토착화 또는 한국화란 말로 미화하거나 자의하고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과 같이 칼빈의 교회관을 통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회의 본질 둘째, 교회의 기능 셋째, 교회의 사명 넷째, 교회의 성격 다섯째, 교회의 기본으로 교회관을 생각해 볼려고 한다.

II.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는 왜 필요한가? 단지 각 개인의 "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 " 으로서 예수의 지시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만인 것인가? 교회의 본질은 가변적인가? 아니면 고정된 것인가? ⁴⁾ 교회 본질에 대한 이같은 질문에 대해 4가지 유형의 견해를 찾아 볼 수 있다. ⁵⁾ 첫째 교회는 누원의 기관인 동시에 신자의 사귄이다. 둘째, 교회는 사건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조물이요, 말씀 선포의 순

주 4) Hans Kung, Was ist Kirche? 이흥근역, 교회란 무엇인가? (서관: 분도출판사, 1984), p. 22

5) Heinrich Ott, Die Antwort des Glaubens, 김광식역 신학이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pp. 345-354

수한 사건의 산물이요, 듣고 대답하는 인격적 신앙의 산물이며 ~~이~~ ~~에~~ ~~나~~ ~~라~~ 단지 사건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 세계,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인 동시에 경험적으로 존립하는 제도화한 기관이다. 넷째, 교회는 기독교 내지 종교 일반의 기능적 사회학의 형식 중 하나이다. 칼빈주의적 교회관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구원의 기관인 동시에 성도의 교동으로 이해한다. 칼빈이 교회를 구원의 기관임을 생각하였다는 사실을 김 영재 교수는 그의 연서 (칼빈의 교회관)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⁶⁾ "교회를 성도의 교동으로만 강조하는 것은 루터교에서 온 개념이다. 오토 베버는 칼빈의 교회 이해가 루터교의 교회관과는 다른 점을 잘 설명한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성도의 교동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제정하신 기구임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백성을 계속 가르시고 유지하시게 원하시며, 또한 복음의 계속적인 선포를 위하여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4 : 11 - 15) 그들의 입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에게 원위도 주셨다.⁷⁾

1) "성도들의 어머니" 러시아의 교회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 제 권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단체 안으로 초청하시거 그 안

주 6)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역, 칼빈의 교회관(서울 : 흥만출판사, 1985), pp. 22/10

7) J. Calvin 휴 틴슨 역 권 기독교 강요, 이종성역 (서울 : 대한 기독교 서회, 1966) p. 133

연합은 어떤 것인가?" 이 어머니가 그의 배 속에서 우리
 락을 잉태하고 우리를 낳으시며 젖을 먹여 양육하고 우리
 가 육신을 벗고 천사처럼 될 때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우
 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떠날수 없다. 어머니의
 사랑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 혹은 구원이 불가능할 것이다.¹²⁾

로마-카톨릭은 구원의 은총이 교회 자체에 의해서 주어
 진다고 주장하나, 칼빈은 말씀과 성령의 내적 역사에¹³⁾
 의해서 구원의 기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¹⁴⁾

또한 칼빈은 선노되는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적인 성경읽기와 영성만으로 하나님을 알겠다는 주장들¹⁵⁾
 을 반대하여 말씀의 선도를 담당한 목사들을 중시한다.¹⁶⁾

하나님은 지기의 백성을 키움에 있어서 단번에 온전케
 하실 수도 있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장성하는 것
 을 원치 않으시고 교회의 양육 아래 두기를 원하셨던 것
 이다.¹⁷⁾ 하나님은 성도가 교회외의 어떠한 곳에서도 영적으로
 자랄수 없게 하셨다. 어머니가 우리를 배 중에 잉태하
 여 낳은 후 우리를 젖먹여 길러 주었듯이 우리는 육에서
 벗어나 천사와 같이 될 때까지 (마22:30) 계속적으로 교회
 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며 교회의 사랑을 떠

주 12) Inst. IV. 1.4

13) 연요한, 칼빈의교리론(석사학위논문, 장신대대학원, 1986) p. 10

14) Inst. IV. 1.4

15) Inst. IV. 1.5

16) 연요한 op. cit., pp. 10~13

17) Niesel-Wilhelm, Die Theologie Martin Luthers, 칼빈의 신학, 대
 한 기독교 서회, 1973, p. 185

나서는 이사야(시37:32)와 요엘(욘 2:32)이 증거하듯이 사죄나 구원을 바랄수 없다.¹⁸⁾ 따라서 그리스도의 현존의 장소로서의 교회는 단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와 우리 죄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만나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교회도 향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⁹⁾

결국 칼빈에 있어서 교회는 말씀을 소유하는 방법을 가트키며 신앙을 유지시키고 지탱시키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곳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의 품안에 안기여 있는 한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며 이 진리가 교회의 신자들을 하나님께의 백성으로 양육시켜 나가는 것이다.

2)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을 항상 교회론의 배후에 안에서 말하고 있다. 그는 교회를 정의함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 초판(1536)부터 마지막판(1559)까지 예정교회를 사용하였다.²⁰⁾ 특히 1536판에서는 전 6장 중에서 제 2장 "신앙에 관하여"에서 교회를 정의하기 위해서만 예정교회를 사용하였을 정도로²¹⁾ 선택과 예정론은 깊은 관계가 있다.

칼빈은 이렇게 정의한다. "첫째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의 교회²²⁾를 믿으니, 그것은 보편적으로 선택받은 자의 수이다."

주 18) Inst IV. 1:4

19) Niesel 전 개서 p. 145

20)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서울: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4) p. 10.

21) Ibid, p. 438

22) OS I, 86; CR I. 72. 오토 바버, op. cit., p. 48에서 인용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입장에 근거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인한다. 칼빈
이 이렇게 예정 교회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²³⁾

여기에 관하여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구원은 확고부동한 초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
상의 모든 기관이 무너져도 튼튼히 설수 있다. 그 이유
는 그것이 우선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여 그의 영원한
섭리가 그러하듯이 흔들리거나 사타질 수 없기 때문이다."²⁴⁾

이러한 설명의 글자는 어거스틴에게서 배운 것이었는데,
선택과 교회를 연결한 것은 칼빈의 자신 생각이었다.²⁵⁾

어떤 신자라도 남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배움을 받았는지 또는 버림을 받았는지 알수가
없다.²⁶⁾ 아무도 남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의 택한 자로 아신다. 그러므로 칼빈
은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선택"²⁷⁾ 이라고 하
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선택과 그의 내적 부르심을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하나님

주 23) W.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역, 칼빈의신학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73), p. 189.

24) Inst. IV. 1. 3

25) 오토 베버, op. cit., p. 47

26) 오토 베버, op. cit., p. 49

27) Inst. IV. 1. 2

만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아주 적은 숫자의 선택된 사람들이 있으며 알곡이 많은 쭉정 이들 가운데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그의 교회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비밀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가? 29) 하나님의 선택은 개인인의 신앙뿐 아니라 모임을 강조한다고 칼빈은 말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모두 교회의 머리 되신 한 분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 한 몸을 이룬다. 이들은 한 믿음 안에 살며 한 소망, 한 사랑, 한 성령 안에 사는 자들이다. 그리고 동일한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³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참으로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 형제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언제 어디서나 피차의 안부를 교환한다고 생각할 뿐이다."³¹⁾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교회는 공동적 또는 보편적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 28) Inst. IV. 1. 2

29) E. Brunner는 예정교회가 개인주의적 신앙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30) Inst. VII. 1. 2. 에 5: 30

31) Inst. IV. 1. 3 오로베버, op. cit., 53

인간으로 미리 예정된 바와 같이, 수많은 우리도 역시 그의 지체가 되도록 미리 정해진 것이³²⁾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삼위일체 안에서 굳게 연결되어 있으며³³⁾ 그것은 천사나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죽은 자나 산 자나, 누구든지 택함을 받은 모든 존재의 총수⁴³⁴⁾이므로, 하나님이 택함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다.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견해는 기독교 역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였다.³⁵⁾ 따라서 '믿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설 수 있으며 따라서 세계의 전 조짐이 바뀌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그들을 인척심으로 돌러지키시고 보호하신다"³⁶⁾고 하였다.

교회는 인간이 주도권이나 능력, 인간적인 요소를 지니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도로 형성되었고 선택된 무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임을 말한다. 누름받은 개개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3) "그리스도의 몸" (corpus Christi)으로서의 교회

교회나 본질 이해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주 32) H. Cole 가 ^{p. 40}Calvinism을 인용한 지원용, op, cit, 123을 제

33) 이종성, 칼빈, op, cit., p. 45.

34) 이종성, 칼빈, op, cit., p. 147

35) 이계준, 교회, p. 57

36) 엡 1:13, Calvin, Inst, IV. 1. 2

가 *σωμα* 와 *σῶμα*로 의미상 구별없이 번역 되었으나 사도 바울의 몸이란 전인 (whole person)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또한 *μορφή* (형태 form)는 신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몸'이란 말은 "모양" "형태" 즉, "전인간"을 다 포함한다. 몸은 육체적인데 영적 존재이며 사람은 곧 '몸' (*σωμα*)이라고 할 수 있다.

*σωμα*는 곧 나 (I)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몸'은 전체로서의 '인간', 그의 '인격', '자아'를 의미할 수 있다. 이 인간은 자기행위의 대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살펴보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의 기원은 '성찬' (Eucharist) 으로부터 하고도 히브리 구약시대에 선제단 교역 즉 하나님 의 백성의 공동체 라고도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개념은 "종말론적 새 공동체 또는 새로운 외종이다" 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통일성과 조화를 의미하며, 개인의 의사와 행위를 초월하는 근본요인에 통일성을 두고 있음을 말한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이다. 교회는 공동이익과 彼此의 사랑을 위해서 조직된 '몸'이며

주 41) 고후3:18 롬8:29 빌3:6,8

42) 고전13:3,9 9:27 빌1:20 롬12:1 고전6:14 (*σωμα* = I)

43) 고전9:27 13:13 5:44 고후5:10, 빌3:21

44) J. A. T. Robinson, The Body의 내용을 인용 (p.56) 이장석 .op. cit. p.66에서 재인용

45) 빌6:16-17 고후5:6 고전11:25 롬12:4, 고전9:10, 11:11, 12, 27 →

46) Inst. IV, 1, 3 고전 12:13-30 롬과 지체, 행 4:32 (한마음, 한뜻이 되기) 이장석, 칼린. op. cit. p.127, 등 참조

사회라고도 한다.⁴⁷⁾

네째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롬 12 : 5), 희랍어의 ἐκκλησία(교회)는 "전체교회" (total church), "지교회" (local church) 또는 "회중" (Congregations)을 지칭하기도 한다. 전체교회를 지교회보다 위에 놓는 것은 교회와 모든 신도들을 다 포함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⁴⁸⁾

다섯째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이며 그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이다.⁴⁹⁾ 그러므로 몸과 머리는 몸전체의 조직체로서 동일체에 의하여 분리될 수 없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인용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그는 충만케 하기 위하여 그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도는 교사로 구분하며 이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통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 (Corpus Christi) 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이른⁵⁰⁾ 다고 하였다. 이는 교회가 생명이 없는 기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 (a living Organism) 이라는 것이다.⁵¹⁾

주 47) Inst. IV, i, 3,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엡 4:12)

48) 고전 12: 골 1:18-25

49) Inst. IV, i, 3 고전 11:3, 골 1:18, 2:10 엡 1:22, 4, 15, 5:23 참조

50) Inst. IV, i, 5 (엡 4:10-13 참조)

51) Inst. IV, i, 2.

이를 니젤이 그의 저서인 칼빈의 신학에서 논평하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⁵²⁾에 관하여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이며, 그 통치자와 머리이다. 개인이나 단체로서의 개체가 교회를 통치할 수 없다고⁵³⁾ 하며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우리는 지상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친교를 가지게 된다.⁵⁴⁾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그리스도의 '몸과 혼'(The body and soul of Jesus Christ)⁵⁵⁾에 복종해야 한다⁵⁵⁾고 지적한다. 교회의 질서와 다스림이 교회의 본지에서 유대되는 것을 모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칼빈은, 만인 제사장설에 입각하여 교직자와 평신도의 위치를 같게 본 루터와는 달리 말씀의 도구요, 봉사자라는 점에서 교직자의 위치를 확보하였다.⁵⁶⁾

성도의 교통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의 인연을 갖는다는 뜻이며, 하나님으로 부터받은 은혜 은사등 모든 유익한 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이나 재물까지도 포함한다. 그는 교회의 유일한 지배를 확보하기 위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신다. 각자는 전체의 덕을 세우기

주 52) Inst., IV, iii, 3의 내용을 니젤이 언급한 것을 재인용함

53) Niesel, Ibid, p. 188

54) Ibid, p. 187

55) 엡 1:22, Inst., II, i, 2.

56) 이형기, op. cit., pp. 462 ~ 464.

위해서 필요한 특수 은사를 받는다.⁵⁷⁾ 칼빈은 지체개념 이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권성분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 질서를 강조한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형제애로서 연합하여 서로 유무상동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⁵⁸⁾ 그럼 말셀리우스 귀 (J. M. Kirk)은 교회의 지체개념을 다섯 가지로 풀이하고 있다.

- (1) 몸의 개념은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을 가르쳐 준다.
- (2) 지체로서의 교회 개념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말해준다.
- (3) 동시에 교회의 씨조성을 가르친다.
- (4) 몸의 머리에 붙어야 하듯 교회도 그리스도께 바로 속할때 통일을 할 수 있으므로 교회 연합의 성경을 가르쳐 준다.
- (5) 지체의 신비성, 교회의 신비적 성경을 가르쳐 준다.⁵⁹⁾

확실히 교회를 몸에 비유한 것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 중심의 본질성과 그리스도와 성도의 불가분의 연합성을 가르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할때 칼빈은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신자들의 지체라는 두가지 개념을 생각한다. 이 개념들이 상관관계가 있으나 칼빈은 그리스도의 다

주 57) Conn. Rev. 12:6, Ep. 4:7

58) Corpus Reformatorum, Calvin Opera, II, 281

59) J. M. Kirk, Ecumenism and the Evangelical (Philadelphia, Pa.: Pt. R. Publishing Co., 1958), pp. 100-102.

스리십을 우선으로 본다. 머리되신 그리스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의 성도의 모임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4) "성도들의 교제" 로서의 교회 (Communion Sanctarum)
'기독교 강요'의 제4권 1장 3절의 제목을 "The Communion of Saints"(성도의 교제)라고 했다.⁶⁰⁾ 칼빈에 의하면 사도신경에서 이 조항은 가견적 교회와 어느 정도 관련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자매의
을 가져야 하며 교회에 대해서는 응분의 권위를 허용해야 한다.⁶¹⁾ 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만약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며,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의 머리라면 형제의 우애로 하나가 될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피차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⁶²⁾

'Communion'이란 용어는 '풍성한 위로'를 내포한다. 주님이 자기의 지체에게 준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속한게 되며, 성도가 즐기는 모든 은사는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한다고 칼빈은 말했다.

어떻든 '성도들의 사귄'은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어구이다. 교회는 성도들의 친교 가운데서 결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무엇이나 나누야 하며, 상호 협조하여

주 60) Inst., IV. 1. 3

61) loc. cit

62) Ibid., IV. 1. 3

개방하여야 한다. 이 교회라는 친교의 공동체에 속한 자는 단순히 시민사회안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참된 지혜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이다. 교회에는 무용한 지체가 없고, 상호간의 애정, 동정 관심, 그리고 後進가 있을 따름이다.

모든 지체들은 개인의 능력과 본능에 따라 그들 각자에게 할당된 본기와 정해진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성도들은 사랑이 지배하지 않는 곳에는 德化가 있을 수 없고, 교회의 본산이 있을 따름이다. 라고 ⁶³⁾ 루터는 말한다. 본혜서에 의하면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공동체이며, 행위와 존재의 결합체이다. ⁶⁴⁾ 행위와 존재의 동일체로서의 교회는 다른 사람과 참된 대면을 경험하는 진실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다. ⁶⁵⁾ 여기는 실존이 이태되는 장소라고 본다. 본혜서에 의하면 제도적인 존재는 직악된 인간의 실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것은 인간에게 대면하여 서지못하며, 전적으로 객관적 (gegenstandlich)인 존재일 뿐이다. 이것은 타인과의 참된 만남에서만 가능한 ⁶⁶⁾ 것이라고 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서 교회로 존재하신다. 곧 역사적인 비밀기운에 있는 교회로 존재한다. ⁶⁷⁾ 그리스찬 공동체의 집합적인 인간이다. ⁶⁸⁾ 교회는 우리

주 63) 지원용, 루터와 종교 개혁 (서울: 온글디아사, 1969) pp. 227-231

에 4:70-70 참조

64) 본혜서, 그리스도론, 이종성역 (서울: 서울 기독교 서회, 1979)

65) Ibid., p. 111

66) 이계준,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1973), p. 13

67) 정용섭, 교회개선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1980) p. 133

68) 이종성, 칼빈, op. cit., p. 137.

가운데 숨겨진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홀로 있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가져다 주고 그리스도를 그 자신에게 병합시키며, 또한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활속으로 이끌어 드린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며, 그리스도께서 계시신 곳에서 교회도 있다.⁶⁹⁾ 이렇게 볼 때 교회가 은혜받는 외적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Ⅲ. 교회의 기능

1) 교회의 표식의 말씀과 성례전

교회의 기능은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을 집행하는데 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기능은 곧 참된 교회의 표식(*Notae Ecclesiae*)로 볼 수 있다.

참된 교회의 표식은 복음의 말씀과 성례(세례와 성찬)이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살아있는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존재한다. 이는 머리가 있는 곳에 몸도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거기서 그 말씀이 순결하게 전파되고, 또한 들을 수 있으며, 성례전이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실행되는 그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

주 69) 본위서, *op. cit.*, p. 52.

70) 이것은 곧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황집권체제에서 감독과 교황의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외형적인 조직과 조직의 권위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상실한데 대한 복음적인 회복을 위하여 칼빈이 말한 것이다.⁷¹⁾

칼빈은 말씀이 순결하게 전파되고 성례전의 집행이 순서에 따라 거행되는 곳에 참된 교회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거기에 무슨 인간적인 과오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두 가지 요소만 잘 집행된다면 거기에 참된 교회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⁷²⁾ (엡 4:13~14) 그러므로 칼빈은 로마 교회를 참된 교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⁷³⁾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인 세례와 성만찬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⁷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거룩함이나 경건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외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힘있게 証據로 하나님의 은총이 실제로 나타나 역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어 한다고 볼 수 있다.⁷⁵⁾

교회는 일정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표식을 지니고 경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한편 공간과 경험계를 초월해서

주 70) Inst. IV. i. 9

71)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 박영남역(서울:세종문화사, 1979), pp. 29-33

72) Inst. IV. i. 12, 5, 9.

73) Inst. IV. i. 5

74) 지원용, op. cit., p. 24 이근삼, 칼빈주의(부산:고신대 출판부, 1978) pp. 26-70 정용섭, op. cit., p. 118

75) 엡 1:13~14

존재하고 있다. 이 교회를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결코 어떤 제도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단체나 통치체제로서의 교회나 사찰, 교황 혹은 어떤 인위적이고 외적인 요소가 아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자못된 것이다. 교회는 말씀을 고백할 뿐이다. 그것은 증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교회가 신앙의 어떤 조합을 만들어 내거나 보충할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⁷⁶⁾ "말씀"은 교회를 존재케 하며 교회를 믿는 성도들을 낳고 길러주는 "어머니"이다.⁷⁷⁾

말씀이 없는 곳에 신앙이 있을 수 없고, 신앙이 없는 곳에 성도가 있을 수 없다.⁷⁸⁾ 성령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그 "말씀"의 생명이 성령과 성만찬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눈으로 볼 수 있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은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를 바로 식별한 표식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며 경청되어 시행되는 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이나 장소에 붙어 있거나, 외부적인 의식의 집행에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⁷⁹⁾

주 76) 정성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서울:세종문화사, 1980), pp. 163-178

77) Inst. II. i. 1 (갈4:20, "교회는 거룩한 어머니인 말씀을 통하여 모든 크리스찬을 낳는다" (Ecclesia est sub verbo et mandato eius non supra) 라는 루터의 명언도 있다.

78) 지원용, op. cit., p. 126.

79) Inst., III. ii. 3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제와 기호라는 논문에서는 좀 다른 각도로 표시하고 있다.

교회의 표식은 사랑과 화평의 결합으로 유지되는 통일성과 교회의 공교회성(Catholicity)과 세계성(Universality)도 있어야 하며⁸⁰⁾ 여기에 의식들을 추가한다고 말했다.

타르트는 어느 교회이건 간에 자신이 '참된 교회인가?' 하는 질문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면, 어느 교회도 타교회로부터 '내가 참된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벗어날 길이 없다.⁸¹⁾ 고 말했다.

칼빈은 '참된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그의 판단앞에 신앙으로서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을 아신다는 비판적인 병제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⁸²⁾ 고 말했다. 참된 교회는 사랑으로 판단된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 견전한 교회와 형제애로서 이루어진다.

형제애는 사랑의 계명을 거둬 실천하는 데에서 얻어진다. 성도의 사김은 겸손을 연습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성립된다. 로마교회는 인위적인 조직의 권위를 위주로 일곱개의 성례를 제정하여 신도들의 인심을 노예화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말씀 즉 교회의 제1표지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불신자

주 90)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op. cit., pp. 228-237
81) 칼. 말트, 교회와 예배, 장하구역 (서울: 사상계사, 출판
년도 미상) P. 16
82) Inst. I. IV. 32

에게 전달되는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까지 확대 적용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도 교회가
 (구원의 기관) 인 동시에 (구원을 얻게하는 기관) 이 되어
 야 한다고 제안하였거니와 이와 관련하여 교회의 표지인
 말씀에 있어서도 전도와 선교의 개념을 추가해야 될 것으
 로 본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 안에 신자
 들에게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보존, 성장 하도록
 할 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까지 그리스도
 를 선포하여 선교대명령과 종말론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2) 말씀의 선포인 설교

복음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성례전을 바르게 집행하는 것
 은 교회의 생명의요소이다. 교회의 생명은 교회가 지닌 사
 명을 감당함으로써 만 영위된다. 교회의 사명중의 하나는
 예배이다. 그 예배의 내용은 설교와 성례전이다.⁸³⁾

칼빈은 성례를 세례와 성만찬만을 인정한다. 로마 카톨릭
 교에 있어서는 예배의 중심이 성례인데 반해서 개신교에서
 는 '설교' 가 그 중심이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에게 전파하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 신앙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 83) 이종성 칼빈의 신학 op, cit., p. 208.

방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신앙의 말씀을 들음으로서 오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성소에서 집회하여 제사장의 잇으로 부터 나오는 교회에 의해서 신앙을 일치시키고 함양했다.⁸⁴⁾

이는 설교자의 설교를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같이 경청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뜻한다.⁸⁵⁾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침으로서만 덕을 세울 수 있다. 설교는 신앙에 대한 각성과 신앙과 부딪고 자애의 증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정한 방편이다. 이것은 곧 로마교회의 성례와 참회의 제도를 대신하는 것이다.⁸⁶⁾ 교회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의무적이다. 설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 향상한다.⁸⁷⁾

하나님은 이 설교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사도들과 목사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대항케 한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간적 밀천으로 말씀을 손상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입을 성별하여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를 설교를 통해 듣게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영을 설교와 연결시키고, 좋은 성과를 약속하시므로, 자신이 설교의 주인공이 되시며, 교회에 덕을 세우신다.⁸⁸⁾

주 84) Inst., II. 1. 5

85) loc. cit

86) 이종성, 칼빈의 신학, op. cit., pp. 218 - 223

87) Ibid

88) Inst., IV. 1. 6

설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국한하여야 하며 우
리를 구원하는 복음만을 선포해야 한다. 설교는 교회가
행해야 할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⁸⁹⁾

3) 성례전

칼빈의 성례론에 있어서 그 특징은 그가 두 성례의 공
통된 성질을 발견하려고 시도한 데에 있다,⁹⁰⁾ 그는 성례
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또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제의한 모든 표시"가 된다는 점에서 그
공통된 성질을 찾았다. 그의 (기독교 강요) 제 4 장 1 - 6
절에서 그는 성례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칼빈은 성례 (Sacramentum) 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단어는 히랍어 *μυστήριον* 에서 온 것으로서 '거룩한 것, 대한
비밀' 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다.⁹¹⁾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이 단어의 뜻을 바로 이해하여 '신
앙' 의 의미로 보았다. 그러나 고대 교회 저작자들은 군인
이 상관에게 맹세하는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것을 상
관이 군인들을 체제속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의미로 가
꾸어 썼다.⁹²⁾ 이상에서 칼빈이 말하고자하는 요점은, 성례

주 89) Inst., IV, VIII, 8.

90) O. Weber, op. cit., p. 125.

91) Inst., IV, 14, 2.

92) Inst., IV, 14, 13.

가 어떤 의미에서든지 인간이 이해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라는 것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성례의 정의를 내린다.

"나는 성례가 단순하고 내용을 가진 개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이렇게 말할 때에 그러하다. 즉 성례는 하나의 외적인 징표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으로써 우리 마음에 그가 우리에게 친절을 약속하는 언약을 인치셔서 우리 신앙이 연약하게 될 때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앙을 주님과 천사들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한다."⁹³⁾ 여기서 칼빈은 성례가 하나의 외적인 징표라고 하여 성례의 외적 성격을 강조한다.

성례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면서 확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성례를 "거룩한 것의 가시적 표시" 혹은 불가시적 은혜의 가시적 형태"⁹⁴⁾ 라고 한 것을 인용하였다. 이러한 시각적 감각적 표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례전이 말씀보다 뛰어난 점은 그것이 우리의 시각 또는 감각에 의뢰함으로써 "그림에 나타나듯이 생생하게 우리 눈 앞에 약속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⁹⁵⁾ 그러나 칼빈은 로마-카톨릭과는 달리 성례전에

주 93) Inst. IV. 14. 1

94) Ibid

95) Inst. IV. 14. 1

참여하기 전에 두엇보 설교를 통해 신앙을 가져야 한
 면고 주장하여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칼빈은 "설교를
 들을 때에 비토소 보이는 표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고, "약속 혹은 복음"이 먼저 선
 행하지 않는 성례는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칼빈이 성례
 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의식
 을 어떤 의미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외적인 상
 징에 의해서 확증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근거"이다.⁹⁶⁾

따라서 성만찬은 단지 외형적 요소들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만찬의 근본 취지는 그리스도가 의식을
 제정하셨을 때 그의 신성한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된
 다.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세속적인 물질적 환경 들로부
 터 우리를 구별시켜 주고 고결하게 만들어 주는 증거가
 된다. 칼빈은 그가 왜 물과 빵과 포도주의 요소들을 따
 토 구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준다.⁹⁷⁾ 이
 러한 상징들은 그 물질 자체만으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총과 약속과 분리되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물
 질 자체에는 우리에게 성례전의 의미를 주는 어떠한 효능
 도 내재해 있지 않다.⁹⁸⁾ 오늘날 그리스도는 인간들에 의
 해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사실

주 96) Inst IV, 14, 1.
 97) Inst IV, 17, 11
 98) Inst IV, 14, 3

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례전을 베풀 때에 그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⁹⁹⁾의 약속에 대한 참된 설교만이 "그러한 상징들이 나타내 주고 있는 뜻을 어렵듯이나마 이해시켜 주고 상의 장소들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 바로 이점과 관련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들음 (설교) 에서 나기 때문이다.¹⁰¹⁾ 그러므로 우리가 성례전을 세속적인 상징과 증거를 의미한다고 보는 한, 구원의 확실성은 성례전¹⁰⁰⁾의 기초를 두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것이다. 믿음은 전적으로 설교의 말씀과 성례전에 의존한다. 은총의 수단 없이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지도 않을 것이고 살아 남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것이 사방에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 시킨다. "주여, 저의 불신앙을 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¹⁰³⁾ 그리고 그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신앙의 불안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라고 말한다.¹⁰⁴⁾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 능역 있

주 99) Inst IV, 14, 4.
 100) Ibid.
 101) Inst IV, 14, 5.
 102) Inst IV, 14, 6.
 103) Inst IV, 14, 7.
 104) Ibid.

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례전이라는 은총의 수단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시키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탱시켜주고 유지시켜주며 견고하게 해주고 한층 강하게 해준다."¹⁰⁵⁾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나타난대로 성례전의 의미를 들었으나,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며 성례전의 증거를 통해서 인척지는 그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를 논해 보고자 한다. 문제는 성례전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에게 은사를 대개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순전히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는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교회의 관란 칼빈의 가르침을 어렵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하여 칼빈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더 깊이 알아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이우며 안에 심어지고, 강화되며 그리스도 자신과의 교제에 도달하며, 그의 은혜를 성례전의 준수를 통해서 점점 더 깊이 맛보게 되면 맛볼수록 성례전은 우리 안에서 더 효능을 나타낸다.¹⁰⁶⁾

성례전의 역사는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연관시키며 결합시키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 이유는 칼빈에 의하면 모든 영적인 효력은 한 중보자 안에 그 근

주 105) Inst. IV, 14, 7.
106) Inst. IV, 14, 16.

거를 두며, 따라서 그와의 교제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느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칼빈의 전
체교회의 태두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례전에 참부된 약속의 말씀 자체에
서 나오는 것이다. 성만찬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소리높게
선도되는 까닭에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현실적으로
증거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우
리의 눈앞에 나타나시며 우리의 손으로 탄져 본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¹⁰⁷⁾ 세상적인 요소는 우리도 하여금 영적인
현실에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눈앞에 보이게 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요소 자체도 우리에게 보여준다. 떡을
떼므로 우리가 주의 몸 에 참여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주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셨다는 사실에 의
심의 여지가 없다.¹⁰⁸⁾ "그리스도는 성례전의 지표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모든 성례전의 실제다.¹⁰⁹⁾ 따라서 성령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역시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게 약속되며 베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이것 (성례전) 이 우리의 신앙을 반(半) 그리스도가 아니
라 그리스도를 지향케 하며 원인이 그의 육에 있다는 사실
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 인인간으로써의 자기의

주 107) Inst. IV. 17. 3.

108) Inst. IV. 17. 10.

109) Inst. IV. 14. 16.

힘으로 의롭게 하거나 생명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자기 속 깊이 감추어져 있던 것을 중보자를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것이 신의 마음에 들어다는 것은 말한다.¹¹⁰⁾

칼빈은 로마 카톨릭의 7성례를 개혁하여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도 마틴 루터와 견해를 같이했다. 성례는 설교와 더불어 교회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영적 활동의 본질이다. 성례에 의해 신앙이 생기고, 복돋아지며, 죄의 사면이 약속된다. 칼빈은 성례전을 도구 혹은 방편으로 취급한다. 이것은 "실체" (Substance) 와 성례전을 동일시하는 로마카톨릭의 교회를 배격하고 성례전을 단순히 "상징"이라는 상징설도 배격한다.¹¹¹⁾ 칼빈에 의하면 성례전은 그의 선한 뜻에서 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봉하는 외적표식이며,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돕고, 하나님 앞에서나 천사들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¹¹²⁾ 했다. 에리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성례전은 "성스러운 사상의 가견적 기호이고, 또는 불가견적 은총의 가견적 인식"이라 했다. 계속해서 칼빈은 성례전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력줄 수 있는 상담자 (Counsellor) 이며, 그의 선하신 뜻에 대한 약속의

주 110) Inst. II, II, 9

111) 이종성, 칼빈신학, op. cit., pp. 218-223

112) Inst. IV, xiv, 1

113) Ibid

상징이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동반하지 않는 성례전이란 있을 수 없다. ¹¹⁴⁾ 고 말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다음에 성례가 뒤 따른다. 말씀없이 성례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된 성례의 복음은 명료하게 선포되고 설교되어야만 하는 ¹¹⁵⁾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례는 말씀 즉 성경을 보충한다. 어거스틴이 성례를 "보이는 말씀" 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 그림과 같이 선명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 ¹¹⁶⁾이라 했다. 성례전을 '건물의 기둥'에 비유하면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성례는 말씀이란 기둥에 의존하여 더욱 더 견고해짐을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말씀에만 의지하지 않고 우둔한 인간들에게 더욱더 명료하게 증거한 것이니 성례는 곧 하나님의 인애의 표시이다. 그의 인애안에는 약속까지 첨가된다.

성례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고로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¹¹⁷⁾ 성례는 영적 교사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므로서만이 유익하게 되며, 또한 그 직무를 바르게 시행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맹연의 눈 앞에

주 114) Inst., IV. xviii, 19
115) Inst., IV. xiii, 4
116) Inst., IV. xiii, 6
117) Inst., IV. xiii, 7

태양의 빛과 같은¹¹⁸⁾ 구이되고 만다. 칼빈은 구약의 성례나 신약의 성례나 모두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증거한다. 다만 우리의 성례는 더 분명하고 밝은 것이지만, 둘 다 그리스도께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우리의 것이 더욱 풍부하고 총만하다¹¹⁹⁾

이상 성례전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염두에 두면서 세례와 성만찬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① 세례 (Baptism)

칼빈은 먼저 세례의 정의부터 내리는 것으로 논하기 시작한다. 즉, 세례는 "복헌의 징표인데,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영접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¹²⁰⁾ 이 세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세가지 은혜를 받는다. 첫째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앞에 세움을 받게 된다. 세례는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징표요, 그 증명이다. 이때 우리를 "정결케 하고, 중생시키며, 세롭게 하는 것"은 세례의 물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는 것이다.¹²¹⁾ 즉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성화시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 닿는다.

주 118) Inst. IV. xiii. 9
 119) Inst. IV. 14. 26
 120) Inst. IV. 15. 1.
 121) Inst. IV. 16. 2.

이때에 세례는 이 메시지가 와 닿았음을 인치는 것이다.¹²²⁾
이런 문서에 적힌 '도장과 같아서 모든 죄는 고발되었고,
구속되었으며, 지워져 버렸다' 사실을 인치는 것이다.¹²³⁾

믿는 사람 다음 속에 드러난 복음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와같이 세례를 받을 때 전 생애의 모든 죄악
이 모두 도말되고 용서된다.¹²⁴⁾ 칼빈은 (로마서 3:25) 을
인용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어졌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후의 모든 원죄가 소멸되고
본성적으로 정결하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칼빈은 그렇게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다만 세
례를 통하여 죄사함과 형벌을 면제받음에 대한 보증을 믿
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imputatio) 에 의해서¹²⁵⁾
단 무죄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원죄와 실제론 짓는 죄악은 계속 믿는 자를 안에 남아
있다.¹²⁶⁾ 원죄는 본성의 부패와 타락이기 때문이다. 둘째
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과 삶에 관한 것이
다. 세례는 죄의 무조건적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를 확증하고 표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삶에도 갱신되는 것을 표시한다.¹²⁷⁾ 세례는 세례는 "그리
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상에 접붙여지는 것을 확증하고 표

주 122) Ibid

123) Inst. I. 15. 1

124) Inst. IV. 15. 3.

125) Inst. IV. 15. 10

126) Ibid.

127) Inst. IV. 15. 5. *et hoc est quod dicitur in scriptura*

시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축복
 을 나누어 가짐을 표시한다."¹²⁸⁾ 따라서 세례란 교회의
 사권에 들어간 것을 표시하는 입회식의 표시이다. 이 예
 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하
 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 이와같이 세례는 세가지 의
 미를 갖고 있으며 니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세
 계 의미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¹²⁹⁾ 다음으로 세례와 신앙
 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세례를 믿음과 연결시켜
 주는 것은 무엇일까? 루터교와 로마가톨릭의 견해는, 그
 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세례 자체가 기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한다. 칼빈은 사도행전에 예들들어
 고넬료가 세례를 받기 이전에 벌써 기독교인이었다. 그러
 므로 세례는 하나의 징표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표부
 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세례는 하나의 징표일 뿐이다.
 그것은 표부를 발생시키는 징표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독
 신자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지정하신 징표가 없
 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 여기서 칼빈의 특징이 알
 여난다. 특징은 주관적인 행위를 논할 때면 반드시 삼위
 일체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역을 동시에 논한다는 것이다.¹³⁰⁾
 칼빈은 "징표는 식물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혼

주 128) Inst. II. 1. 6.
 129) O. Weber pp. cit. 1. p. 109
 130) O. Weber sop. cit. 1. p. 131

합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즉 세례는 효능이 있으나, 그 자체가 효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② 성 만찬 (Communion)

성만찬은 우리의 영원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하는 영적 향연이며, 그 기초는 떡과 포도주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그리스도의 떡 그와의 교제로서 중생을 얻어 활력을 회복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¹³¹⁾ 성찬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독생자의 손을 통하여 영적 양식을 다량히 주는 것이다.¹³²⁾

그리스도는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육의 생명이 떡 포도주도 양육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는다.¹³³⁾

세례가 교회에 들어가는 입문이라면 성찬은 초보적인 신앙을 고백한 우리들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양육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 이외의 것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이와같이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가시적인 놀과 빵과 포도주가 합당하게 사용되는 곳에 참 교회가 있다.¹³⁴⁾ 성찬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결합이다. 이 확신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한다.¹³⁵⁾

주 131) Inst., IV, XVII, 1.
132) Ibid., IV, 17, 1.
133) Ibid.
134) 니콜레, op. cit., p. 193
135) Inst., IV, XVII, 2

칼빈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리인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함께, 떡안에, 그리고 떡속에 계신다는 화체설 (The transubstantiation theory)을 배격한다.¹³⁶⁾ 또한 물질로서의 떡과 포도주는 물질 그대로 남아 있으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씨가 거기에 기적적으로 또한 신비적으로 임재한다는 말빈 루터의 공재설 (The consubstantiation)도 반대한다. 또한 쾰링글러는 로마 카톨릭교회로부터 철저하게 개혁하여, '떡과 포도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시하거나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라는 상징설 (The Symbolic view)을 주장했다. 칼빈은 쾰링글러의 설에 매우 친근했으나 성찬전을 통해서 믿음이 증가된다는 것을 반대하는 쾰링글러의 의견에는 반대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과거의 사건을 상기하지만 현재 그리스도가 이 물질적 표식안에 영적으로 존재해서 신자의 믿음을 굳게하고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칼빈의 성만찬에 대한 견해를 대이론 (A. Dakin)은 지적하기를 칼빈은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현실적 임재관념이 확고하며, 그는 현대 신앙의 특징인 둘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완전히 분리하기를 거절한다.¹³⁷⁾ 고 했다.

칼빈은 교회의 기능중에서 사죄와 성화를 첨가해서 설명

주 136) 이종성, 칼빈 op. cit., p. 163
 137) Ibid. pp. 162-163

한다. 사죄와 성탁은 세례와 성찬찬을 통해서 확인된다고 기술했다. 교회의 기능은 사죄이다.¹³⁸⁾ 주의 은사는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¹³⁹⁾ 그리스도의 증보와 성령의 성탁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

교회가 가진 다른 기능은 '성탁'이다 교회의 회원들 가운데 하나라도 결함이 없는 자가 없다. 거룩함과 순결성을 갈망하는 그것으로서 믿음으로 성탁을 입을 것이다.¹⁴⁰⁾

로마 카톨릭의 성례전은 교회의 지주다. 그것은 비수세자는 교인도 아니며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카톨릭에서는 7성례를 말한다. 영세 (Baptism), 견직성사 (Confirmation) 성찬 (Eucharist), 고대 (Penance), 종부성사 (Extreme Unction) 혼배성사 (Marriage), 성직세례 (Holy Ordainers) 등이다. 그중에도 영세가 기본적인데, 이러한 성례들을 통하여 교인들을 지배한다.

칼빈은 성례전이 구원의 필수조건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 의 말씀의 일부이며 성도들은 그 말씀에 참여하여 감화를 받으라고 한다. 성찬은 활자화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이다. 그러므로 카톨릭의 7성례는 "가공적이며 거짓"이라고 칼빈은 비난하였다.¹⁴¹⁾

주 138) 이종성, 칼빈 Ibid., pp. 162 - 163

139) Inst., IV, i, 21.

140) Inst., IV, i, 10.

141) Inst., IV, XIV, 12, 17

칼빈은 불경건한 자와 합당치 않은 자의 성찬 참여를 반대한다. 이것은 성찬이 본질적으로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이다. 합당치 않은 자는 고전 11: 9에 기록된 것과 같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⁴²⁾ 때문에 칼빈은 성찬에 합당한 자의 조건으로 비록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신앙과 사랑을 내세웠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과 고백, 거룩한 삶, 형제들을 위한 사랑과 희생등의 여부를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 이런점에서 볼 때 칼빈의 성찬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할 문제는 현대 산업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성례라는 종교적 의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또한 성례가 말씀과 함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1년에 2~3차의 성례는 적합한 것인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설교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 감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참여하는 성례에 있어서도 설교의 초점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 성례를 행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설교는 더욱 그 초점이 그리스도에게로 맞추어져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하고

 주 142) Inst, IV, 17, 41.

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③ 신앙 고백

칼빈에 있어서 신앙고백은 세례의식을 통하여 이뤄지는데 이는 세례의식이 원죄로부터 해방이라기 보다는 만인의 증인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¹⁴³⁾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든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은 죄인 육위 행위 (갈 5: 16)를 사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세례는 단 한분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일치되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바울도 고린도인에게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앞에 충성할 것을 사람들에게 맹세한 (고전 1:13) 이들의 신앙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처럼 성례전의 의미는 신앙고백적인 깊은 의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4 순종과 복종

인간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복이 되어서 안되며¹⁴⁴⁾ 당연히 거부되어야 하겠으나 반면에 시악한 권력자에 의한 복종의 요구를 성서는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딤후 3:1)

그러나 지배자의 명령에 바쳐져야 한다고 가르친 복종에

주 143) Inst. 4, IV. 3. 10~13
144) Inst. 4, IV. 7. 32.

는 항상 다음의 예외 있다.

주 안에서만 지배자에 복종한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
서 온 죄값으로 우리를 사서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사람들
의 악한 욕망에 더욱 그들의 불경건에 매여서는 안될 것
이다. 마타서 관현은 그 직책에 충실하여야 하¹⁴⁵⁾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의 규율이 엄격히 순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40) 이저넬 칼빈은 순종하여야 할 주체자의 힘과 거부되
어야 할 주체자의 힘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IV. 교회의 사명

교회는 무엇 때문에 있는가? 교회의 목적에 대한 이
같은 근본적 질문에 교회의 실천에 있어서는 어디서나 가
장 진지한 질문으로 터져 나온다. 더우기 오늘날에는 독
표 설정의 근원이 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보다 교
회의 존재이유에 대하여 묻는 질문이 훨씬 더 강하게 전
면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의 근거설
정적 본질과 목표를 선교의 개념 속에다 포함하여 생각하
기 때문이다.¹⁴⁷⁾ 교회의 선교사명 및 위임이란 무엇인가
? 교회는 구원의 기관으로서 신자들의 개발과 부양을 위
하여 있는가? 아니면 봉사하는 집단으로서 모든 사람의

주 145) Inst., IV. 20. 6

146)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부산: 고신대 출판부), 1976, 31

147) H. Ott, op. cit., p. 356

사람됨 위해서 있는가? 교회는 이제까지 지켜 내려오
 는 교구적으로 결부된 '오타'는 구조 (Comestwet)를 더
 지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교회는 '가타'는 구조 (gestwctw
 e) 즉 교회를 '남을 위한 존재'로 보고 교구를 넘어
 서 지역적으로 개방된 입장에서 교회의 기능을 규정해야할
 것인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이들의 입장을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하나님 교회 혹은 하나님 교회 세상 2
 하나님 세상 혹은 하나님 세상 교회.

개혁주의 신학은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보다 교회가
 본질을 더 중시, 교회의 정통성과 교회의 순수성에 역점
 을 두었다. 칼빈은 교회를 (구원의 기관)으로 생각하였으
 나 (구원을 얻게하는 기관)으로는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교회란 어머니로서 신자를 양육하는
 기관이었다. 교회의 사명으로서 칼빈은 예배 혹은 건덕과
 같은 개념은 갖고 있었는지 모르나, 선교를 교회의 사명
 으로 보지는 못하였다. 20C에 들어와서 세속화현상과 교
 회관은, 교회의 본질을 무시 혹은 왜곡하고 교회의 사명
 만을 강조하는 우를 범하였다. 결과로 본질이 무시 혹은
 왜곡되었고, 따라서 교회의 사회학, 정치학, 세속화가 일어

나게 되었으며 선교의 개념도 인간화, 정치 경제적 압박에서의 해방, 타종교와의 대화 등으로 변질되었다. 박형룡은 칼빈이 강조하지 못했던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여 칼빈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였고, 교회의 명으로서 예배 건덕 교회의 증거를 들고 있다.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고후 5:20) 또한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한 임무로서 (행 1:8) 복음증거의 사명이 교회의 최고 임무라고 그는 강조한다. 심지어 (불은 연소에 의하여 존재함 같이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애밀, 부으너의 말을 인용하면서 "교회는 세계의 복음진리를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이 사명을 수행하기를 중지하면 교회는 교회됨을 중지한다! 고까지 단언한다.¹⁴⁸⁾ 그러나 선교의 개념에 있어서 자유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간화 사회화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파하여 증거하는 일로 간주한다.¹⁴⁹⁾ 이와같은 사상은 그의 (증거의 동기)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네 가지로 복음 증거의 동기들 이야기한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둘째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민의 주도 되시기 때문에, 셋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의 민망여 여기는 마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148) 박형룡, op, cit., p. 193
 149) Ibid, p. 192

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모으기 위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교회는 복음 증거의 동기를 갖는다. ¹⁵⁰⁾ 교회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는 "교회가 무엇이기에 때문에" 라는 교회의 본질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세계의 복음진리를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이 사명을 수행하기 중지하면 교회는 교회됨을 중지한다" 는 말은 "교회의 최소 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증거하는 일이다" 라는 말은 교회의 제 1표지인 말씀과 연하여 생각할 수 있다. 개혁신학에 있어서 선교와 관련된 교회의 본질 표지 사명등 지금까지의 미비점을 보완한 교회관이 시급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V. 교회의 성구

교회의 성구를 ① 기록하고 보편적인 교회 ② 가견적 교회 ③ 불가견적 교회 ④ 참된 교회의 표지 4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 기록하고 보편적인 교회

칼빈은 교회를 공교회 (Catholic) 또는 보편적 (Universal) 으로 부른 것은 그리스도가 산산히 찢기어지기 전에는 돌 혹은 세계의 교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 (고전 1: 13) 이다.

주 150) Ibid. pp. 193~194

고 말한다. 모든 선택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으며, (엡 1:22 - 23), 그들은 머리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하나의 몸으로 성장한다 (엡 4:16) 그들은 신체에 수족들과 같다. (롬 12: 5 고전 10:17, 12:12, 27), 그들은 하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으로 살고 있는 한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동일 하고도 영원한 생명의 후사로 불릴뿐만 아니라, 한분인 하나님과 그리스도 (엡 5:30) 에게 참여하게 된다.¹⁵¹⁾ 또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고백문에서도 곧 교회는 " 유일하고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Th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 라는 고백으로 교회의 속성을 설명한다.¹⁵²⁾

교회의 "유일성"이란 한 주님 안에서 가진 신앙의 유일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결코 어떤 의식이나 외적인 행동면에 있어서 형식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¹⁵³⁾ 곧 교회는 크리스찬을 위한 추상적인 그룹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성도들의 '사귄'이다. 즉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장소"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론적인 경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¹⁵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통하여 성도들은 친교를

주 151) Inst. cit. IV, i. 2

152) op. cit.

153) 엡 4: 5-6

154) 차원용, op. cit., pp. 218-219

가지게 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된다.
 그러므로 유일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몸과 피로
 세워진 것이다.¹⁵⁵⁾ 교회는 각지역에 있는 개교회를 포함하
 고 개교회는 각지방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세워진다고 칼
 빈은 말한다. 교회는 전역사과정을 통하여 언제나 동일한
 면 존질은 불변한 것이다.

반면의 교회의 다양한 형태는 모든 교회의 타락과 참
 교회와 거짓교회의 대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교회는 거룩하지만 교회의 거룩함은 매일 향상되
 나 완전성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¹⁵⁶⁾ (사35:8) 그러므로
 견책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
 이 전적으로 완전한 거룩성과 성결을 열망하므로 하나님의
 선에 아직도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의 목표가
 되는 고결성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¹⁵⁷⁾ (롬 9
 :23) 세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거룩함을 성취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인
 정받는 것 뿐이며, 그리스도의 이상을 향하여 가는 과정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가견적인 교회

-
- 주 155) F. E. Mayer *The Una Sancta in Luther's Theology*
 을 인용한 지원용 2b2, 동면 재인용 (CTM, 1947, No. 101-115)
 156) 교회의 단일성과 보편성은 로마카톨릭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외적인 연합이나 조직화된 그의 세력을 세계로 번
 최 이어 가르침을 만방에 선포한 것 같은 상태로 리
 해하게 되면 그것을 착각인 것이다.
 157) Inst. II, i. 1. IV, i. 1.

칼빈은 성도들의 어머니로서의 가견적인 교회라는 제목을 사용하면서 가견적교회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했다. 가견적 교회는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한분이신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공공연하게 고백하는 모든 무리를 말한다

이들은 참되고 영적인 교회안에 있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몸이다. 이것이 역사적이며 가견적 교회이다. 가견적 교회는 그리스찬을 위해서 중요하며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과 그리스도가¹⁵⁸⁾ 수권을 계속케 하려고 설정한 외적인 수단이다.

가견적 교회는 신앙을 배우는 유일한 방편이며 그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찬은 그리스도에게 결합되므로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 가견적 교회의 임원이¹⁵⁹⁾ 되므로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가견적 교회는 신자들이 출생하고, 젖을 먹고 양육을 받아 육신을 벗고 천사와 같이 될때까지 계속보호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도구이다. (마 23: 2-3)

'어머니'로서의 가견적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사자와 소당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성장을 단번에라도 가능케 할 수 있으나 자의로 성장하는 것을

주 158) Inst. 4 IV. 1. 4.

159) 권경권, *오비디*, P. 224

허락치 않고 교회의 약육에 달린다. 이를 위해서 성도
 를 온전케 하는 사도, 선지자, 전도사, 목사 그리고
 교사를 세웠다.¹⁶⁰⁾ 고 칼빈은 말한다. 그는 또한 무교회주
 의자들을 비난했다. 이들은 가견교회를 멸시하고 공동집회
 를 소홀히 하며 설교를 무용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
 은 교회의 통일을 스스로 분산하는 자들이다.¹⁶¹⁾ 라고 비난
 했다.

칼빈은 가견교회에도 많은 위선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리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뿐 능력은 부인하며, 욕심과 시기심이 가득하여 방방
 생활을 하는 자들이기. 그래서 불가견적 교회의 실재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가견적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고백과 성례전에 참여한다.

가견적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될 뿐만 아니라 경청되고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
 대로 성례전이 집행되는 곳이다.¹⁶²⁾ (마18:20) 누구든지,
 '말씀'과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성도의 공동체에
 서 활짝하는 자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반역자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¹⁶³⁾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자비와 영적인 생명의 특별한 증기되 그의 '무릎'에게 제한

주 160) 전경연 Ibid., pp. 230-231

161) Inst., IV, i. 5

162) Inst., IV, i. 8.

163) Inst., IV, i. 9

따라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항상 비극이라고 그는¹⁴⁹⁾ 지적한다.

칼빈이 처음에 불가견적교회를 강조하게 된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외적인 가견적교회가 문제된 까닭이었다.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후에 제네바에서 개혁교회를 설립하여 목회하면서 부딪치는 이단과 반대파의 논적과 또한 자유주의사조에 부딪쳐서 교회의 모습을 가견적교회이다. 중립을 둘 수 밖에 없어서 그의 교회론은 불가견적 교회보다 가견적교회에 치우쳐 있을만큼 비중을 크게 다루었던 것 같다. 그래서 가견적교회는 성도들의 진교로서의 유대강화 와 내적인 종교생활의 중요와 그들의 경험을 교류하며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권했다. 그러나 이 비교가 깨어질 때는 언제나 교파가 좌생되었으니 큰 약점이기도 하다.

칼빈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인식하는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도리히 보이는 교회를 위하여 힘껏 봉사하였다.¹⁵⁰⁾

3) 불가견적교회

칼빈에 있어서 교회의 성격은 2중적이 아니라 하나이다 그러나 교회를 두개의 각도에서 절충하여 "불가견적 교회"¹⁵¹⁾ 와 "가견적 교회"¹⁵²⁾로 구분한다. 따라서 교회 개념은

주 149) Inst. II, 1, 10
150) C. Weber, op. cit., p. 62
151) Inst. II, 1, 7 (The invisible church)
152) Inst. II, 1, 4 (The visible church)

두 개의 교회에 대한(교회)를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가견적 교회를 경험적인 교회에 직면시키며 한다고¹⁵³⁾ 니젤은 말한다. 이것은 두 가지의 교회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¹⁵⁴⁾ 칼빈이 불가견적 교회를 강조한 것은 당시의 중세교회가 가견적인 면에 치중하여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데 대한 회복을 위한 시도도 볼 수 있으며, 또한 로마교회의 가견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상영이냐는 견해에 대한 반론의 시도도 볼 수 있으며¹⁵⁵⁾ 불가견적인 교회의 구성원은 과거나 미래나, 장소의 원근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 자들은 누구든지 다 회원이 될 수 있다.¹⁵⁶⁾

이는 하나님이 실제로 교회에 현재하여 신도들을 그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성령의 성화에 의해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되게 한다. 교회는 참으로 세상 존재하고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참 시도 부터 선택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여기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한분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들 경배하는 땅위에 산재해 있는 모든 군상을 지적한다. 또한 우리는 불가견적 교회가 하나님의 안락에 단 가견적인¹⁵⁷⁾ 것이라는

주 153) W. Niesel, op. cit., pp. 141-42 - 참조
 154) 이종성, 칼빈, op. cit. p. 150.
 155) ibid., p. 150.
 156) Inst., IV, c. 7.
 157) Inst. 및 Niesel, op. cit. 참조 (p. 172)

사 을 믿어야 하며, 그러하기에 우리는 가건적인 교회를 존경하고 그 안에 서교제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다. 또한 칼빈의 불가건적 교회개념은 어거스틴에 의해서 나타났으며 위를 법에 의해서 상용되었던 표현이다.¹⁵⁸⁾

어거스틴의 불가건적인 교회의 견해를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립함은 성령의 내재, 교회의 성원, 예배, 그리고 성례전 등 교회의 제활동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성령의 부재는 교회부재이며 오순절의 교회가 그 좋은 예이며 몸과 함께하는 영혼처럼 교회의 영혼이 곧 성령이라고 하였다.¹⁵⁹⁾

특히 성령이 내재와 역사에서는 삼위일체신조의 견지에서 성부, 성자, 성신의 내재와 역사를 동시에 생각하였다. 어거스틴은 도나티스트파와의 논쟁에서 이단과 교회분열에 대한 태도를 나타냈다. 도나티스트들이 말하는 "성령은 신자 개인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부인하는 앞으나 개인이 성령을 소유하려면 원칙적으로 신자의 공동체인 그리스도 몸이 속하여야 하며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성도 회원의 영혼이 되어 모든 자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원리는 사랑(Charity)이다.¹⁶⁰⁾ 또한 어거스틴은 불가건적 교회의 내적

주 158) Inst. II, IV, 107

159) 이장식, op. cit., pp. 109-114 (St. August: inie) 설교집 인용)

160) Ibid., pp. 109-110

조직에 있어서 신앙과 소망과 사랑을 그 요소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성례전이 외부적인 종교의식인데 반해서 상기 제요소들은 불가결적 교회의 내용으로서 교회의 내면적 일치에 필요한 것이다.

칼빈은 아거스틴의 예정론에 입각하여 교회론을 전개하였는데, 즉,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존한다. 예수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자를 영원히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임재하심으로 서 교회는 요동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자들과 언제나 사귀기를 유지한다.¹⁶¹⁾ 이것은 교회가 외부적인 형식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데 대한 반대도 칼빈이 언급한 것이다.¹⁶²⁾ 이것은 또한 제도적인 성공을 내세워 유일하고도 참된 교회라고 자부하는 로마 교회의 주장에 대한 반박인 동시에, 로마교회가 교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생활에 있어서 개혁을 필요로 하나 그 교회내에 불가결적 교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론이다.¹⁶³⁾

칼빈에 의하면, 사도신경에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은 가견적교회뿐만 아니라, 죽은 자와 산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¹⁶⁴⁾ 이 한다. 여기서 "믿는다" (Credo) 라는 어구에 'in'을 붙이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가 신앙의 대상이 아

주 161) Inst., IV. 1. 3

로렌, 비트너, 칼빈주의 예정론, 홍의표역, p. 117 참조

162) 로렌, 비트너, Ibid 참조

163) Inst., IV. 1. 1

164) Inst., IV. 1. 2

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은 유행적 가견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선택된 성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어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육하신 것에 비교하여 불가견적 교회가 가견적 교회로 성육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교회는 믿을 수 없거나(165) (성무 2:19, 열 4:16) 그리고 불가견적 교회는 가견적 교회를 심판하고, 지배하며,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지시한다.

불가견적교회는 가견적교회를 늘 비난하고 시험한다. 사담을 참된 교회에 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다. 이 모든 것은 추상적인 아니라 구체적(166)인 교회들 전제라고 말하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언제나 불가견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원리와 기초를 얻게되며 가견적교회는 불가견적교회의 내부에서 슬픔을 주며 내어 형성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후자는 내적으로 한계를 지어주며, 제안하고 판단하며 또한 반성시켜 준다.

가견적 불가견적 교회의 구별은 후자가 전자의 추상적 원리든지, 후자의 구체화가 전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전자에서 후자를 인택해 낼수는 없으며

주 165) Inst., IV, 1, 2

166)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 (p. cit.), p. 232

양자의 관계는 그리스도 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167) 말틴 루터는 신앙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유안으로 볼
 수 없는 것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구속받은 성도들도
 유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고로 교회와 더불어 성도
 들은 가비워져 있다. 168) 선한 무자되시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에게 속한 참된 양을 구별할 수 없다. (요
 10:12-16) 그래서 교회의 참 본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숨겨져 있음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다. ("Ecclesia ab-
 scundita, cruce teclatentant") 169) 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회는 십자가 밑에서 하나이며 이들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본 것이다. 칼빈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인식하는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는 교회를 위하여 힘껏 봉사하였다. 170)

4) 참된 교회의 표지

종교개혁 당시 가장 중요한 물음은 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하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존하는 교회가 과연 참
 된 교회인가 하는 것이었다. 칼빈에 의하면 예정 또는
 선택에 입각하여 하나님께 눈에만 보이는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이고 반면에 인간의 눈에만 보이는 교회 혹은 인간이

주 167) Ibid., p. 233
 168) 김원봉, op. cit., p. 211
 169) Ibid., p. 211
 170) O. Weber, op. cit., p. 52

판단할 수 있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표지는 불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가시적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다. 칼빈은, 루터와 멜랑리토이 아우스버그 신앙고백¹⁷¹⁾에서 인정한 것처럼 참된 교회를 식별하는데 객관적 표준 두 가지를 설명하였다.

칼빈이 교회의 지표를 말할때 그것은 완전한 거룩한 교회를 의도하고 있지 않다. 그는 교회의 거룩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의 거룩성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교회는 거룩하다 그런데 그것은 매일 진보하고 있으며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교회는 매일 진보한다. 그러나 아직 그 거룩함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다."¹⁷²⁾

한편 말씀과 성례는 교회의 표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결코 공헌하거나 무익하지 않다.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성례가 시행될 때는 언제든지 그는 살아서 우리와 만나시고, 그가 개신 곳에서 또한 그의 백성도 거기 있게 된다.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는 이와같은 표시는 비록 거기에 위선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특정한 지리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¹⁷³⁾ 니콜레은 이에 대하여 문제는

주 171) Augsburg Confession, art. VI and VII 여기서 교회는 (복음이 바로 전파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모임이라고 정의 되었다.

172) Inst. III, 1-17

173) Comm. on Jer. 1:16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느냐 하는 것이지 결코 경건한 사람
들이나 경건한 공동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¹⁷⁴⁾

그렇다고 한다면 칼빈이 참 교회의 표지를 말하는 것은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체보다는 그 교회가 우리
에게 어떤 진정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외적 수단으로서
) 에 관심을 두고 있음이 더욱 분명해진다.

즉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따라 신
앙에 도움을 주는 장엄한 교회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다.

그러나 칼빈은 삶의 모범 곧 말씀과 성령에 대한 반응
으로서의 순종의 삶을 언급한다. 이것은 칼빈은 사랑의
판단이라고 하는데¹⁷⁵⁾ 그렇다면 칼빈은 권징을 참 교회의
제3의 표지도 추가하고 있는 것인가? 외키¹⁷⁶⁾ 는 칼빈의
권징을 포함해서 3표지를 주장한다고 하나 니젤은 칼빈이
권징을 교회의 표지에 넣지 않았다고 말한다.¹⁷⁷⁾ 삶의 모
범은 분명 상 교회가 아니라 참된 신자 개인에 대한 판
단에서 언급된 것이다. 방델은 의하면 칼빈에게 있어서
권징은 물론 중요했지만 교회개념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
다고 한다. 그것은 단순히 방어의 표준이요, 성화의 수
단이였다. 그러므로 권징은 교회의 조직에 속한 것이지만
정의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¹⁷⁸⁾

주 174) W. Niesel, op. cit., p. 193
175) Inst. IV. 1. 7, OSI, fo. P1
176) S. S. M. Walker, op. cit., p. 226
177) W. Niesel, op. cit., p. 188
178) F. Wendel, op. cit., p. 301.

오토 베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이 틀림 없다." 고 하는 칼빈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 칼빈은 선포되는 말씀에 교회론의 중심을 두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 즉 "참으로 듣는 것"은 교회의 권징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실천을 낳는다. 그러므로 "권징이 말씀과 성례에 속한다는 말은 옳으나 교회의 권징이 독자적인 징표이거나 인간의 독자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다."¹⁷⁹⁾

칼빈은 권징을 믿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권징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더러기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는 이단과 분리주의자, 나쁜 처한 행동으로 교회를 손상시키는 자들을 자제해야 한다. 이 권징은 특히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의미하는 성찬에서 더욱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¹⁸⁰⁾ 둘째 선행한 사람들이 악인들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부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있다. 셋째, 파문당한 자가 회개하여 마침내는 회복되도록 하는데 있다. 한편, 칼빈은 루터보다도 더 철저히 성례전을 본질적인 말씀이라고 강조하였다. 성례전도 말씀이 없이는 결코 무용 지물이 되고 미는 것이다

주 179) O. Weber, op. cit., p. 61.

180) Inst. IV, 12, 5 "우리는 또한 이점에서 주의 성찬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5)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을 참여케 함은 오히려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찬의 분배를 받는 자가 미땅히 제거되어야 할 자를 고의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주의 몸을 깨뜨려 주는 것과 같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칼빈은 교회에 대한 두 가지 표지를 말하자면서도 결국 말씀 하나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말씀 위주의 경향은 결국 교회가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신앙을 일으키며 증진시키는 외적 수단이요, 장임을 더욱 확실히 보여준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보존, 성장하도록 할 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까지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선교 대명령과 종말론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Ⅳ. 교회의 직분

1) 4 교직

칼빈의 교육은 '직분을 중시한 교회'이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마 26: 11) 인간의 부회활동을 사용하신다. 칼빈은 이 하나님의 봉사자들을 가리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절" (고후 5: 20), "하나님의 성전들" (고전 3: 16 - 17, 6: 19, 고후 6: 16), '주님의 전언자 "그리스도의 봉사자들" 혹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경지기" 등으로 표현한다.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에 입각하여 교직자들의 위치를 평신도와 같이

보았으나 칼빈은 교직자의 위치를 확보하였다.¹⁸¹⁾ 칼빈은 주로 에베소서 4:11과 로마서 12:7-8에 근거하여 그의 교직제도를 추론해 내었다. "그리스도의 제정에 따라 교회의 통치를 주관하는 자들은 바울에 의해 첫째로 사도들, 다음으로 예언자들 세째로 복음 전도자들, 네째로 목사들, 마지막으로 교사들이라 불리운다 (엡 4:11) 위에서 언급한 교직중 목사와 교사는 교회안에 향존하는 일상직이고 사도직, 예언자직, 전도사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할 당시에 생겼으며 훗날에 필요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는 비상직이라고 한다. 칼빈은 교직이란 "치리와 성례집행, 그리고 권면성과 경고의 책임을 맡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의 책임만을 맡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사의 직책은 이 모든 기능을 전부 포함한다'고 한다.

칼빈의 교회론은 곧 직분자에 대한 교리라고 할 수 있다.¹⁸²⁾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자의 수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신자들로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신앙인의 공동체라는 성격을 띤 기구이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모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들의 신앙에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말씀을 또한

주 181) Sum. op. cit., p. 366

182) O. Weber, op. cit., p. 71

183) Ibid op. 72

직분자를 통하여 선포된다. 칼빈의 교직체계에서 장로는 말씀이 아니라 권징을 맡은 직책이다. 말씀과 권징을 맡은 *Presbyter*는 목사요, 권징만 맡은 *Presbyter*는 장로라고 한다. 그리고 집사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를 돌보는 일 등을 맡는다. 그런데 칼빈은 이것은 돌로 나누어 하나는 불우한 자들을 위한 제물을 받고 나누어주며 보관하며, 그에 따른 사무행정을 맡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병자를 직접 돌보며, 구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환자과 불우한 자를 돕는 소대에 집사직을 부활시켰던 것이다.

2) 교회의 조직과 직분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조직의 원리는 명확하다. 그는 모데전서 4장 14절에 근거하여 당회 또는 "장로의 회" 즉 제네바의 "콘시스토아"를 목사와 장로가 함께 일하는 기관으로 보고 처음 출발부터 교회의 권징을 주관토록 하였다. 그런데 칼빈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직분이었다. 직분은 가장 높은 것이기는 하지만 직분자들의 모임 즉 당회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노회는 진정한 감독들의 집회로서 교회의 자이를 조정하는 임무를 위한 모임이다.

칼빈은 당회나 노회의 원위를 실제적이며 실용적인 면에

서 인정하고 어떤 추상적인 원리는 생각지 않는다.

칼빈은 교역자가 정식으로 세움을 받는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를 말한다. 즉, 각 사람이 하나님 존전에서 의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내적 소명과 신자들이 어떤 평신도 외 자질과 자격을 보아서 선택하는 외적인 소명이 그것이다.¹⁸⁴⁾ 교회의 관세는 신령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종속되어 사역하는 것이다.

주 184) Inst. IV.3.2,

• 결 론

칼빈은 교회가 신앙인의 공동체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제정하신 구원의 기구임을 강조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란 신자들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는 제도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적인 성격도 가진다. 그러나 그 신자의 공동체로서의 진교나 하나님을 향하는 상향적 집단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시는 다양한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조하였다.¹⁸⁵⁾ 이것은 칼빈이, 인간보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 주권사상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하나님 주권사상은 교회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선택에 놓여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문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다. 우리는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만을 알수 있을 따름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를 두고 가시적 불가시체를 나누고 있다. 가시적

주 185) 현요한 op. cit., p. 133

교회에는 참 신자가 아닌 사람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참된 교회란 참 신자 만으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교회를 말한다. 결국 말씀이 결정적으로 교회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칼빈은 개인적이나 주관적 감정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였다. 따라서 성례전과 직분 개념에 있어서 그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

세례의 성찬은 정당한 두 가지 성례로서 이것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씀에 의한 신앙을 확증해 준다. 이는 말씀이 불완전대서가 아니라 인간의 신앙이 연약해서이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성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한 인간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한다는 점에서 칼빈은 목사직을 교인의 공동체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칼빈의 교회는 직분을 중시한 교회이다. 목사직은 평신도라고 불리우는 교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양자는 불기분의 것일 뿐 아니라, 또한 혼합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들이 모여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회 정제를 형성하였다. 또한 표지에 있어서도 대표자인 "말씀"의 이해에

있어서 전도와 선교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칼빈의 교회론은 실재적이다. 교회는 영원한 운명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교회는 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미리 예정하시는 뜻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교회는 존속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멸망을 받을 세상으로 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것이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유지될 것이다. 교회는 이미 오셨고 장차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참고 문헌)

1. John Calvin.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by Henry Beveridge. 2 Vol.,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22.
2. 칼빈. 기독교 강요, 기본 제권, 서울: 새종문화사, 1977
3. 칼빈. 기독교 강요, 단절하, 신복은공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64
4. 칼빈. 신약성경주석,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편, 서울: 신교출판사, 1987
5. 이형기.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요약,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1984
6. 박형룡. 교의신학 교의론, 서울: 박형룡 박사 저작 전집 간행 위원회, 1977.
7. 김익한. 칼빈주의 교회관, 신학지남, 1975, 가을호, 서울, 신학지남사, 1975.4
8. Niesel, Wilhelm. Die Theologie 칼빈의종성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9. Maxim, Donald. K.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

서울 : 대한 기독교 문화협회, 1986

10. 신복운 . 칼빈 의 교회관, 신학지남 (1979, 봄호) - 서울 : 신학지남사, 1979
11. 이근삼 . 칼빈의 교회론, 교회론제연구 제 1집, 부산 : 교회 문제 연구소, 1979
12. 이종성 . 칼빈,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 대한기독교 출판사, 1978
13. 이종성편 . 칼빈서거 100주년 기념 논문집, 서울 : 한국 칼빈 신학 연구회, 1965
14. 이형기 . 종교 개혁 신학사상 . 서울 :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4
15. 정경연 .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복음주의신학총서 7. 서울 : 한신대학, 1982
16. 전도진 . 현대교회론과 선교사상, 서울 : 세종문화사, 1980.
17. 최동석 . 카이저의 교회론집 이해, 신학지남 (1986. 가을호), 서울 : 신학지남사, 1986
18. Kung, Hans: Was ist Kirche? 이홍근역, 교회란 무엇인가? 왜관 : 분도출판사, 1978
19.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역 서울 : 풍만 출판사, 1985
20. 정성구 .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 세종문화사 1980
21. 도트베버 .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역 서울 : 풍만출판사 1986.